

복막투석 환자에서 Easy Closer 연결관을 이용한 복막투석액 교환방법의 유용성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수현 · 김진영 · 김영수 · 최범순 · 양철우 · 김영옥 · 윤선애 · 방병기 · 김용수

Clinical Benefits of Easy Closer System for Peritoneal Solution Exchange in CAPD Patients

Su Hyun Kim, Jin Young Kim, Young Son Kim, Bum Soon Choi
Chul Woo Yang, Young Ok Kim, Sun Ae Yoon, Byung Kee Bang, Yong Soo Ki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배 경 : 복막투석 환자에서 당뇨병 및 고령 환자의 증가로 시력저하 및 전신 상태가 허약한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투석액 교환 방법을 어려워하는 환자가 많다. 따라서 간단하고 편리한 투석액 교환 방법이 필요하다. 새로 개발된 Easy Closer 연결관은 투석액 교환시 연결구를 부러뜨리지 않고 Luer-lock 방식으로 돌려서 투석액 연결관과 T 관을 연결하도록 고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Easy Closer 연결관 이용이 기존의 투석액 교환 방법에 대하여 유용한지 조사하였다.

방 법 :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28명의 복막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같은 투석액 (Periplus)을 사용하면서, 첫 6개월간은 기존의 투석액 교환 방법을 이용하고, 나머지 6개월간 Easy Closer 연결관을 이용하여 투석적절도, 한외여과량, 투석액 배액 속도, 복막염 발생 및 설문조사를 통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비교하였다.

결 과 : 대상환자는 평균 나이 55 ± 12 세, 남성 18명 (64.3%), 평균 복막투석 기간 52 (1-163)개월이었다. 기존의 투석액 교환 방법을 이용한 첫 6개월의 주 당 Kt/Vurea 값은 Easy closer 연결관 이용 후 차이가 없었다 (2.17 ± 0.83 vs 1.93 ± 0.46). 하루 총 한외여과량은 기존의 투석액 교환 방법으로 $1,244 \pm 574$ mL, Easy closer 연결관 이용 후 $1,307 \pm 469$ mL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p=0.372$), 투석액 배액 후 복강 내 잔여 투석액의 양도 기존의 투석액 교환 방법으로 281 ± 58 mL, Easy closer 연결관 이용 후 309 ± 68 mL로 차이가 없었다. 2,000 mL까지 배액 되는 시간은 기존의 투석액 교환 방법으로 559 ± 70 초였고 Easy closer 연결관 이용 후 579 ± 63 초로 차이가 없었다. 복막염 발생율은 첫 6개월간 1회/56 환자 개월이었고 나머지 6개월간 1회/84 환자 개월로 차이가 없었다. SF-36을 이용하여 평가한 삶의 질은 유의한 차가 없었으나 설문조사에서 Easy closer 연결관을 이용하였을 때 투석액 교환 방법이 더 편리하고 투석액 배액 및 주입 시 막힘 증상이 적다고 응답하였다.

결 론 : 복막투석 환자에서 Easy closer 연결관은 기존의 투석액 교환 방법에 비해 투석적절도, 한외여과량 및 복막염 발생빈도 및 배액속도는 유사하면서 투석액 교환 방법이 더 편리한 제품으로 생각된다.